

독일어 형용사의 구조와 시제

— 부가적 구문을 중심으로 —

徐 忠 南

(독문과 조교)

<차 례>

- | | |
|--------------------------|------------------------|
| 1. 1.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 | 3. 2. N 내에서의 A의 위치 |
| 1. 2. 문제점 및 방향설정 | 3. 3. A의 SUBJEKT |
| 2. 1. Sein+Adjektiv의 문제점 | 3. 4. 관계문과의 관계 |
| 2. 2. 범주구분자질의 문제점 | 4. S(adjektivisch)와 시제 |
| 2. 3. 술어적 용법의 문제점 | [참고문헌] |
| 3. 부가적 용법 | [독문요약] |
| 3. 1. Theta, Kasus의 문제점 | |

1. 1.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

중세이후 명사와 형용사가 구별되기 시작한 이래로 형용사는 ‘양과 질을 나타내며 인물과 사물의 개념을 나타내고 사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사로 지칭되었다.¹⁾ 그러나 구조주의 이후에 언어학의 체계적인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품사론 자체에 회의론 품는 학자들이 많아졌고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품사 구분시에 의미론적 기준과 통사론적 기준을 혼동하고 있는 전통문법과 달리 일련의 최근 학자들에게서는 통사적인 언어현상과 의미론적인 현상을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전통적인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기도 했다.²⁾ 이같은 품사 중에서 특히 형용사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 통사적 위치의 다양성으로 이러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형용사(Adjektiv)가 과연 모든 언어에서 명료하게 구분되는지 자못 의심스럽기도 하다. 더우기 중세때까지 형용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같은 면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명사와 동사는 고대 희랍의 문법에서부터 이미 분류되었으나 동사와 형용사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부류에(특히 Plato의 분류에서) 포함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렇다.³⁾ 또다른 예로는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 볼 수 있다. 이들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다. 어떤 것을 형용한다는 의미에서의 형용사는 있을지 몰라도 인구어에서와 같은 통사

1) Schulz-Griesbach (1969): Grammatik der dt. Sprache S. 121.

2) 예를 들어 Jespersen은 형태를 기준으로 5품사를 구분. Engel은 형용사를 L. 3. 2로 표시.

3) Thrax의 문법에서도 형용사는 없다.

적 특징을 갖는 Adjektiv는 없다. 즉 통사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어의 형용사는 술어적 용법에서나 부가적 용법에서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반면에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통사적인 특징면에서 두 용법이 뚜렷이 구별되며 형용사가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보다 명사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다. 따라서 독일어의 형용사는 한국어의 형용사보다는 통사적인 성격을 덜 갖고 반면에 영어의 형용사보다는 훨씬 더 통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더우기 Ross (1972)의 Squish 문법에서는 품사간의 구별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데 이러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면을 고려하여 독일어에 있어 형용사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며 우선은 서충남(1984)에서 제시된 형용사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2. 문제점 및 방향설정

앞장에서도 지적했듯이 말의 한 부분으로서 형용사의 특성은 모든 형용사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두개의 완전히 다른 통사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통사적인 측면에서 기저의 관계절이 설정되기도 했고 또한 동일한 이유로 형용사의 존재가 의문시 되기도 했다. 즉 Vendler (1968)에서 보여 준 8부류의 형용사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부가적 형용사 구성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해석과 관련하여 부가적 형용사 구성의 기저를 관계절 구조로 설정했다. 이러한 방법은 형용사를 다룬 대부분의 전통문법가들이나 변형문법가들에 의해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히 표명되는 태도로 이러한 접근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은 서충남(1984)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통사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의 혼용에 기인한다. 이외에도 이 방법은 형용사 구성이 가진 여러 의미해석 가운데서 변형으로 설명하기 가장 편한 것을 하나 선택하여 기저로 삼았다는 비평을 면할 수 없다. 비록 어떤 구성에 대한 의미해석의 다양성이 반드시 그 심층구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⁴⁾ 형용사 구성 특히 부가적 구성이 지니는 의미해석의 다양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더우기 독일어에 있어 부가적 형용사들은 다른 부가어—행위자 보족어, Possesives Genitiv, präpositionale Angabe (전치사 첨가어) 등—와 서로 경쟁한다.⁵⁾ 따라서 형용사 구성을 관계절 기저에서 유도한다는 것은 많은 언어학자들(Heringer, Motsch, Winter, Bolinger 등)이 지적했듯이 문법이론으로서 타당치 못하다. 분명 이는 언어지관에도 어긋나고 언어습득과정이나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더라도 그 방법의 타당성이 적다.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 관계절을 먼저 습득하고 부가적 형용사 구문을 습득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옛날에는 관계절 구성이었던 것이 부가적 구문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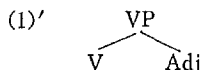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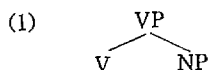
4) 임흥빈(1981): 존재와 속격표지{의} S. 65.

5) W. Teubert (1979): Valenz des Substantivs S. 195.

어렵다. 물론 이같은 경우 공시적 입장에서 통시적 발전의 규칙이 제조명되어야 하며 언어 습득과정과 한 시점에 있어 언어규칙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간의 연관성이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기 다른 이 두 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포용할 이론을 설정하고 이들의 차이를 Parameter의 변화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유한한 언어습득 자료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으므로 언어구조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습득원리에 의해서 획득되지 않는다⁶⁾는 가정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그리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언어의 전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단지 덧붙여 둔다면 Fanselow (1983)는 독일어에 있어 형용사 구성을 부가적인 위치로부터 —즉 관계문을 부가적인 위치로부터— 생성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 둔다.⁷⁾

2.1. Sein + Adjektiv의 문제점

이제 형용사에 대한 논의의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Chomsky (1957)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Kopula Sein을 V에 귀속시킬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VP→V+NP의 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Chomsky (1965)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범주를 분리하여 설명한다.⁸⁾ 이같은 설명은 N sein N형의 sein+Adj.와 V+NP형을 한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이들간의 명백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sein+N, sein+Adj.에서 왜 Kopula만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편 Jacobs & Rosenbaum (1968)에서는 Kopula 구문을 타동사 구문의 특이한 한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이것도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표 (1)에서 처럼,



Knoten의 명칭과 파생순서가 동일한 것이라면 특이한 형이라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특히 타동사와 Kopula는 격관계가 다르다. 동일한 심층구조에서 타동사 구성은 Agent, Patient, Ziel, Aktion 등이 있는 데 Kopula는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⁹⁾ 이는 단순한 형식상의 유사성 때문에 V와 Kopula sein을 동일시 한 것으

6) G. Fanselow (1983): Zu einigen Problemen von Kasus, Rektion und Bindung in dt. Syntax S. 2.

7) Ebenda: S. 96ff.

8) 임흥빈(1970): 생성문법의 한 문제 S.19에서 재인용.

9) Ebenda: S. 20.

로 형용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단지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 문법에서 형용사라 부른 품사와 동사라고 부른 품사가 통사론적인 기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형용사는 [+Verbal, -Verb]의 자질을 갖고 동사는 [+Verbal, +Verb]의 자질을 갖기¹⁰⁾ 때문에 통사론적 기능이 같다는 것이다. Lakoff(1970)도 Chomsky(1965)에서와 같은 형용사와 동사의 범주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Chomsky처럼 동사와 형용사를 분리함은 어떤 특수한 언어의 기술에 치우친 것으로 자연언어를 기술하는 데 보편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형용사와 동사를 하나의 범주 "Verbal"로 묶어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같은 주장들은 동사와 형용사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특히 독일어나 한국어같은 언어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sein+Adj.의 sein은 Aux가 된다. 이것은 형용사의 성격이 동사와 비슷하다는 일부분의 특성만을 설명해 줄 뿐 sein이 Aux로 됨에 따라 sein+N형의 설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설정된 자질이란 것이 단지 통사적 특성에 따른 명칭일 뿐 형용사와 동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쨌든 한국어같은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 반면 영어나 독일어의 형용사는 명사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다거나 Squish 문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사>형용사>명사 사이의 관계가 V>PrP>PtP>PsP>A>Prep(?)>AN>N¹²⁾과 같다는 생각은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나타내 주는 통사적 특성이나 자질을 찾아내어 그같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원리를 규명하여 형식화 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자연언어에서 N.V.A.간의 구별이 어느 정도로 명확한지 의문시되며 독일어 부가적 용법의 경우만 하더라도 Teubert의 분류¹³⁾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같은 구별을 위한 형식화에는 이 모든 부류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같은 관계 중에서 크게 형용사의 부가적 용법(명사와의 관계)과 술어적 용법(동사와의 관계)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2. 2. 범주구분자질의 문제점

Chomsky (1972)가 문장과 명사화된 구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핵계층이론(\bar{X} -Theorie)를 전개한 이래 Chomsky(1981), Stowell(1983)에서는 앞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통사적 특성의 모호성을 범주구분자질(Categorial Distinctive Feature)과 핵계층이론을 이용해 설명을 시도한다. 특히 Stowell은 개개의 자연적인 부류들은 동일한 통사적 절차를 갖는다고 주장한다.¹⁴⁾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핵(Kopf)인 X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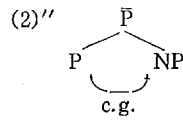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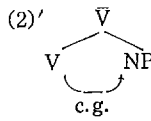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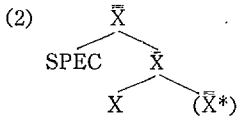
10) R.A. Jacobs & P.S. Rosenbaum (1968):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S. 113.

11) 윤만근(1980): 국어의 중주어는 어떻게 생성되나? S. 86에서 재인용.

12) 장석진(1975): 비단절문법: '스퀴스'와 '불투명논리'를 중심으로 S. 117에서 재인용.

13) Teubert (1979): a.a.O. S. 190ff.에서 11가지를 분류.

14) T. Stowell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S. 21.



그가 제어(c-Kommandieren)하고 지배(regieren)하는 보어(\bar{X}^*)에 격을 줄 수 있는 데 이들 핵중에서 자연적인 한 부류를 이루는 V와 P만이 격을 줄 수 있다. 즉 [-N]만이 격할당자(Kasususzuweiser)이다.¹⁵⁾ 또한 다음 예(3)에서 알 수 있듯이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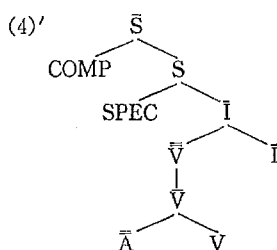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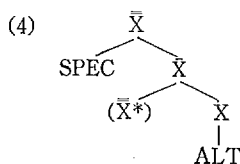
- (3) It was *your book* that I wanted. (\bar{N})
- (3)' It was *under the chair* that I left my coat. (\bar{P})
- (3)'' *It was *angry at me* that John was. (\bar{A})

만이 Cleft 구성을 허용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들의 이같은 분석방법은 어떠한 한 언어에 나타난 특수한 현상을 형식화한 것으로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V]로의 설명은 Nsein N형과 Nsein Adj.형의 구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우기 형용사와 동사의 통사적 특성이 비슷한 한국어나 통사적 특성이 영어보다 더 풍부한 독일어의 형용사에 있어서는 이같은 분석이 들어 맞지 않는다. 영어에서 처럼 어순이 고정된 경우에는 격배당을 위해 지배개념과 [-N]자질 설정만으로 충분하겠지만 독일어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 불가능하다. Fanselow(1983)도 지적하듯이 독일어의 경우 특히 형용사의 격배당의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Squish 문법에서 처럼 V, A, N 간의 통사적 관계가 $V > A > N$ 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으로 이들간에 명확한 구별이 안 될 때도 있다면 단순히 $[\pm V]$, $[\pm N]$ 같은 자질만으로는 이같은 복잡한 문법현상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pm V]$, $[\pm N]$ 등과 같은 통사자질들은 어떠한 문법현상을 설명해 준다기 보다 단순한 분포내지 문법기술상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3. 술어적 용법의 문제점

서충남(1984)은 Stowell(1981)의 생각을 받아들여 현대 독일어 형용사에 있어 부가적 용법과 술어적 용법 사이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질로서 $[\pm Tense]$ 를 설정한다.¹⁷⁾ 즉 이들 두 용법상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내지 의미론적 제약의 원인으로 $[\pm Tense]$ 자질과 시간개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시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통사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단순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15), 16) Ebenda: S. 24.
 17) 서충남(1984): 형용사의 용법에 있어 시제의 역할 S. 44ff.



그는 그림(4)와 같은 구조를 독일어 형용사의 술어적 용법을 위한 기본구조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Riemsdijk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형용사의 θ -Rolle할당 뿐만이 아니고 형용사의 격지배 현상까지도 독일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V, +N]으로 그 자신의 보어에 격을 줄 수 없지만 독일어에서는 [+V, -N]로 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어 전통문법과 의존문법 그리고 Riemsdijk, Fanselow 등이 지적하고 있듯이 독일어 형용사에서는 영어와 달리 명백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4)에서 (4)'로의 투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용사구의 범주설정문제이다. (4)'에서처럼 형용사구를 V의 보어로 가정하는 것은 의존문법과 변형생성문법(앞장 참조)에서 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점이다. 의존문법에서는 이때의 \bar{A} 를 E(보족어)로 할 것인가 A(첨가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sein 동사를 V로 볼 것인가 sein+ \bar{A} 를 PA로¹⁸⁾ 볼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앞서 지적되었듯이 AP의 특성과 관련한 Nsein N, Nsein Adj., NVN간의 설명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 이같은 현상은 Stowell처럼 [+V]와 같은 자질의 설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sein 동사의 다의적인 통사적 특성과 형용사의 애매한 통사적 특성과 같은 복잡한 언어 현상들이 단순히 한 두 가지의 자질로서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Squish 문법에서 지적했듯이 $V > A > N$ 의 차이가 점진적이라면 이같은 단순한 양분법적인 자질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새로운 자질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더우기 sein 동사뿐이 아니고 Kopula로서 bleiben, werden들이 나타날 때 \bar{A} 와 Kopula의 설명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의 Kopula는 단순히 INFL의 실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도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V로 간주하면 \bar{A} 의 처리가 문제시 된다. Fanselow는 이같은 언어현상을 포괄하기 위해 NP INFL XP를 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술어형용사가 나타나는 문장을 $S \rightarrow NP\ INFL\ AP$ 로 표시하는 데 이를 $S \rightarrow NP\ INFL\ PP$ 나 $S \rightarrow NP\ INFL\ VP$ 와 합하여 $S \rightarrow NP\ INFL\ XP\ (X \neq N)$ 로 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Jacobs & Rosenbaum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INFL을 무엇으로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독일어나 영어의 경우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음성적으로 실현된 시제형태소를 갖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INFL의 음성적

18) H.J. Heringer (1970): Theorie der dt. Syntax S. 179ff.

19) Fanselow (1983): a.a.O. S. 85.

실현을 sein 동사로 간주할 때 PP와 AP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고 N sein N형과의 상관관계도 설명되어야 하는 데 Fanselow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bleiben, werden 등과 같은 Kopula는 이러한 설명을 더욱 어렵게 한다. 단지 문장을 NP+INFL+XP로 가정하고 있는 그의 가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INFL이 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XP(NP, AP, VP, PP) 등과는 달리 S는 INFL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용사의 두 용법에서 서충남(1984)이 가정하고 있는 시제의 역할과, 명사화한 구성에는 시제요소가 없다²⁰⁾는 사실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자질을 V, A, N 사이의 차이를 일으키는 자질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단지 이때 sein 동사와 같은 Kopula의 처리가 문제가 되는 데 이들을 단독으로 설정할 것인지 또는 형용사와 함께 하나의 통사변주로 설정할 것인지 또는 단순한 시제형태소의 음성적 실현(특히 sein의 경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독일어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와 달리 통사적인 면에서 그 보어에 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같은 문제는 그대로 부가적 용법에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부가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므로 우선은 술어적 형식을 S→NP INFL XP로 가정한다.

3. 부가적 용법

부가적 용법의 형용사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부가적 형용사구에 수반되는 보어들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로는 형용사구와 이 형용사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가적 용법의 의미의 다양성에 비추어 이들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흡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3.1. Thetar, Kasus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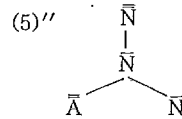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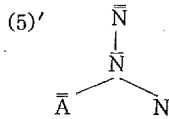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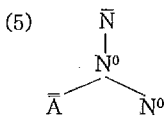
의존문법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형용사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내지 전치사구의 처리 문제로 이를 A로 볼 것인가 E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독일어 형용사가 격지배를 하는 데서 생긴 특이한 현상으로 같은 친족언어에 속하면서도 영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다. 더우기 이들 형용사가 술어적 용법에서와는 달리 부가적 용법에서 이들을 수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구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GB의 이론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된다. 즉 독일어 형용사의 θ -Rolle 할당과 Kasus부여 현상을 어떻게 GB이론의 테두리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앞서도 살펴 보았

20) Ebenda: S. 5에서 제인용.

지만 독일어 형용사는 영어와 달리 어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격을 주고 있다. Fanselow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영어에서의 격배당이 구조적인 것과는 달리 독일어 형용사의 격할당을 thematisch하다고 보고 있다.²¹⁾ 그리고 θ -Rolle의 문제는 독일어에서는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지만 GB의 이론에 비추어 추론해 볼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부가적 용법의 형용사에 있어 형용사가 지배하는 수의적 보어들에 대해 수의적 θ -Rolle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데 이같은 방법은 의존문법이 안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 모두를 Motsch (1965)나 옛 변형론자들처럼 사전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문법이론으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이같은 논쟁은 본고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단지 부가적 구문을 중심으로 Fanselow 등을 살펴보고 시제자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

3. 2. N내에서의 A의 위치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용사구와 그 상관명사(Bezugswort)의 관계 설정으로 이 문제는 의존문법에서 뿐이 아니고 변형문법, Montague 문법내에서도 학자들 간에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서충남(1984)에서 자세히 다루어 졌으므로 여기서는 핵계층구조 이론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자. 이 이론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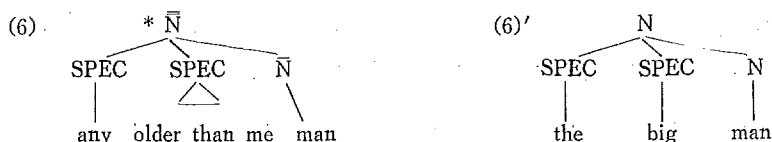


여기서 Chomsky가 말하는 투영원리와 하위범주화 원칙이 일반적으로 존중된다고 할 때 핵과 보어(즉 상관명사와 형용사구)의 D-S구조는 (5)'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가적 구성에서는 핵이 N이 되므로 문제가 된다. \bar{A} 는 N에 의해 지배될 뿐 아니라 c-Kommandieren 되므로 N으로 부터 θ -Rolle나 Kasus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N의 투영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어와 영어에 있어 \bar{A} 는 N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ar{A} 는 Nominale Matrix에 의해 그 종류가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²²⁾ 따라서 (5)'의 구조는 부적당하다. 결국 부가적 형용사구는 일반적인 핵계층구조이론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5)처럼 어휘규칙으로 처리되든가 (5)''처럼 Adjunkt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중 (5)의 구조는 Stowell, Permulter 등에 의해 지지된 것으로 영어에 있어

21) Ebenda: S. 73.

22) 파생명사인 경우는 전치사구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명사앞 형용사는 Clitic pronoun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앞 Adjunkt로서 maximale Projektion은 불가능하며 P S Regel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6)²³ 참조) 따라서 Lexikon에서,



(7)과 같은 Word-Form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7) the man [who is big] → the [big man]

(7)' [Aα]+[Nβ] → [Nαβ]²⁴

그러나 이것은 서충남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독일어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명사앞 형용사구가 maximale Projektion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5)와 같은 구조로는 일반적인 형용사구의 특성을 기술할 수 없다. 결국 독일어에 있어서는 (5)''와 같은 구조가 일반적인 부가적 형용사구를 위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관계절이나 동격구 또는 관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조가 더 있을 수 있다. 특히 서충남에서 다루어졌던 Typ 1과 Typ 2에 따른 구조상의 차이나 Montague 문법이나 생성문법 등에서 처럼 술어 또는 Operator의 Skopus에 따른 구조의 다양성 등이 논의될 수 있겠고 (5)'' 구조 자체에서도 Kasus 삼투현상이나 격할당, 지배, c-Kommandieren 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Jackendoff (1977), Chomsky, Fanselow 등에 따라 X²-Ebene를 수의적인 restrictive Ergänzung으로 보겠다.²⁵

3. 3. A의 SUBJEKT

이제 부가적 용법에서 남은 문제는 이 Adjunkt된 \bar{A} 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이들이 "SUBJEKT"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술어적 용법에서 형용사구가 주어 역할을 갖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Stowell도 (8)과,

(8) That was very nice of John, wasn't it?

(8)' I consider John very stupid.

같은 예를 들어 AP에도 주어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⁶ 그리고 비록 다른 조건에 쓰이는 것이

23) Stowell (1981): a.a.O. S. 282.

24) Ebenda: S. 285.

25) Fanselow (1983): a.a.O. S. 10.

26) Stowell (1981): a.a.O. S. 257.

지만 (9)와 같은 Burzio의 정의,

(9)²⁷⁾ If some NP governed by V is assigned no Case, then the VP of which V is the head assigns no θ -r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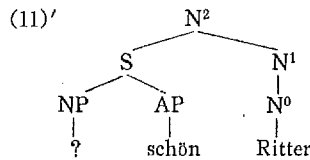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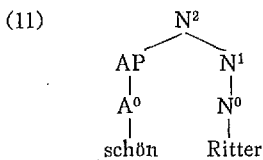
를 독일어의 형용사에 적용한다면 형용사가 목적어에 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에 θ -Rolle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더라도 술어적 용법에 있어 주어의 존재는 분명하다. 문제는 부가적 용법이다. 의견상의 통사적인 면만을 본다면 독일어에 있어 부가적 형용사구는 maximale Projektion인 \bar{A} 로서 N에 Adjunkt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론적 해석도 끌어낼 수가 없다. Adjunkt된 \bar{A} 와 N 사이에서 어떤 관계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부가적 용법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영어에서와 같은 단순한 범주(AP) 설정만으로는 독일어 형용사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독일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10) Der damals im Zimmer schlafende Angeklagte.

(10)' Das dem Kind (von dem Faulenzer) gestohlene Gold.

(10)과 같은 문장들이 예사로 등장함을 볼 때 단순히 \bar{A} 같은 범주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이같은 형용사구들을 모두 술어적 위치에서 변형에 의해 유도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무리한 주장이다. 어떤 한 용법에서 다른 한 용법을 유도하려는 것은 특정한 한 언어를 위한 규칙이 될 뿐 언어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용법 모두를 인정하고 이들의 제약은 문법의 다른 부분에서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어의 형용사에 있어 부가적 용법은 어떤 통사적인 구조를 갖는가? 이 문제를 Fanselow는 GB의 이론을 토대로 독일어의 부가적 형용사구는 S (Adjektivisch)라고 주장한다.²⁸⁾ 즉 Schöne Ritter의 구조는 (11)이 아니고 (11)'이다.



이는 형용사구가 “주어”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 (12)와 같은 문장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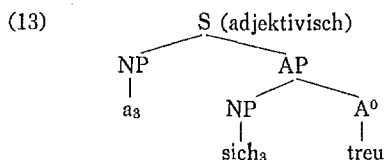
27) S.J. Keyser & T. Roeper (1984) On the Middle und Ergative Construction in English S. 401에서 재인용.

28) 이후 논거는 Fanselow (1983:83-94)에 의거함.

(12) (die sich₂ treue Verbuchungsdame)₂

(12)' (die einander₇ verachtenden Männer)₇

이 예문에서 sich와 einander가 B.T.에 의해 maximale Projektion 내에서 공지시(koindizieren) 되어야 한다. 그런데 (11)과 같은 구조에서는 sich 등이 N²밖에 있는 것과 결속(Bind)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1)'와 같은 구조가 되어야 하고 이같은 구조에서만 sich 등은 N² 내에서 결속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적 형용사구는 (13)과 같아야 한다.



한편 신효식(1984)에서 논의된 독일어 문장부사들이나 Fanselow가 지적한 angeblich, wahrscheinlich 같은 부사들이 술어적 용법에서 AP보다 높은 단계에 나타나는 데 이 부사들도 (14)처럼 부가적 위치에서 가능하다.

(14) die (angeblich verführerische) Susa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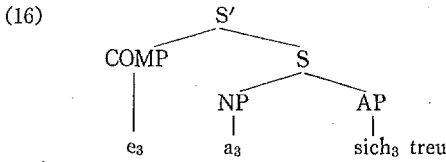
(14)' der (wahrscheinlich verlorene) Zehnmarkschein.

이것 또한 부가적 형용사 구조로서 단순한 AP보다는 (13)과 같은 구조가 더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13)구조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만약 a₃가 NP밖의 어떤 범주와 공지시될 수 있다면 sich₃ 등은 a₃를 매개로 하여 NP 밖으로 부터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a₃는 일종의 변항(Variable)으로 NP밖의 모든 referentielle Phrase와 referenzverschieden해야 한다. 그러나 a₃는 변항이므로 다시 RP²⁰⁾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AP는 Chomsky, Stowell 등이 이미 지적했듯이 INFL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지배소가 되지 못한다. 더우기 a₃는 변항이므로 Prinzip c에 의해 A-frei해야 하는 데 전체 NP는 A-Position인데다 a₃를 c-kommandieren하지 못하므로 전체 NP는 a₃를 결속하지 못한다. 비슷한 예문인 다음 (15)가 보여 주듯이 오히려,

(15) (the man (who₃ (e₃ came)))₃

Ä-Bindung이 요구된다. 결국 a₃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Operator가 필요하고 (이때 Move-α를 가정할 수도 있다.) 부가적 형용사 구조는 최종적으로 (16)과,

29) Ebenda: S. 179.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a_3 이 주어로서 하나의 θ -Rolle 받고 있고 더우기 변항이므로 Chomsky (1981)에 의해서 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독일어에서 S (Adjektivisch)의 NP가 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예가 (17)처럼 als를 포함한 문장이다.

(17) Der als ein Held gestorbene König Arthur.

여기서 ein Held의 선행사(Bezugswort)는 Arthur가 아니다. 독일어에 있어 als 구조의 경우 선행사와 als 다음의 명사는 동일한 격을 지닌다. 그런데 다음 (18)의 비문법성으로 보아 als구를 포함하는 전체,

(18)* Niemand hilft dem als dem größten Schweinehund bekannten Ritter.

NP가 als 다음에 나오는 NP의 선행사가 못된다. 오히려 als 다음의 NP의 선행사는 앞서 가정되었던 a_3 와 같은 형용사구의 주어이다. 그런데 이 주어가 격을 갖지 않는다면 또는 통사적인 면에서 형용사적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ls를 포함한 문장은 Kasusfilter를 어기게 될 것이고 결국 부가적 형용사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17)같은 문장이 가능하므로 a는 격을 가져야만 하고 결국 독일어에 있어 부가적 형용사의 구조는 (16)과 같은 구조이어야만 한다. 또한 이같은 결론은 독일어보다 통사적 특성이 풍부한 한국어의 경우를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 4. 관계문과의 관계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Fanselow는 제한적 관계문을 부가적 위치에서 생성시킬 것을 주장한다: 즉 관계절은 원래 finit한 부가어적 형용사인데 독일어에는 \bar{S} 가 finit인 경우 \bar{S} -N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특수한 (19)와 같은 Filter가 있다고,

(19)³⁰⁾ *(NP...S'...N...), falls S' fi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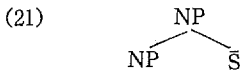
가정하고 이 Filter에 의해 N의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20)의 문장들도 이같은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30) Ebenda: S. 96.

(20) *des Lesesaaldieners der in Algier arbeitet Freundin.

(20)' *des Königs der schießt Befehl.

고 볼 수 있다. 더우기 NP- \bar{S} 구조로 분석하는 데 대응하는 구조(21)이 \bar{X} 이론의 규칙으로는 전혀 생성될 수 없고,



오히려 Chomsky Adjunkt의 전형이기 때문에 EXTRA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표준이론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의 생각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하나의 용법에서 다른 하나의 용법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오히려 두 가지를 다 허용하고 각 언어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이들간의 통사적 내지 의미상의 차이는 문법의 다른 부분에서 규칙내지 원리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록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구는 옛날에 관계절이 없었고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명사앞 위치에도 finit한 문장이 출현 가능했던 것이 후에 관계문으로 발전했다고는 하나 관계문이 명사앞 위치에서 점차 명사뒤 위치로 이동했다고만 주장할 명백한 근거는 없다. 더우기 역사적인 규칙순서가 꼭 공식적인 규칙의 순서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찌면 명사앞 finit한 문장의 소멸·관계문의 출현은 전혀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 즉 전혀 다른 두 언어체계의 충돌내지는 한 언어체계에서 다른 언어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체계의 변화과정³¹⁾이지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언어현상 내지 규칙의 변화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서충남에서 주장되었듯이 사전에는 이 두 용법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사적 특징만 등재시키고 여기서 투원원리에 따라 이 두 용법이 D-S 구조에 모두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 간의 통사적 내지 의미상의 차이는 문법의 다른 부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령 아직도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서충남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제 Operator나 [±Tense] 자질은 이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규칙으로 형식화할 수도 있겠다.

4. S (adjektivisch)와 시제

(16)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Fanselow의 입장은 관계문으로 부터 부가적 형용사를 끌어내는 표준이론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가적 형용사 그 자체가 Infinit한 관계문이라고 보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등에서는 명사에 뒤따르는 관계문은 없고 모두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 한국어 등에서는 관계절이 명

31) Vennemann (1974), 박진길(1984) 등은 언어유형론에 입각 SXV→TVX (또는 SVX)의 과정으로 본다.

사에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보편성이 있다. 그러나 영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 문제점이 있다.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영어의 경우에는 명사앞 형용사가 maximale Projektion이 아니다. 따라서 Fanselow의 방법으로는 영어와 같이 형용사가 명사적 성격을 많이 지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되며 더우기 독일어에 있어서도 이 방법으로 모든 형용사가 다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특히 Squish 문법에서 주장하듯이 V, A, N 사이가 $V > PrP > PtP > PsP > A > Prep(?) > AN > N$ 과 같다면 Fanselow의 방법으로는 V에서 A까지의 설명에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A에서 N까지의 설명에는 영어에서처럼 무리가 있다. 오히려 영어에서는 조어법에 의한 방법이 타당성이 더 많다. 따라서 서충남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독일어의 부가적 형용사의 구조에는 오히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Montague 문법에서 말하는 내포형용사들 경우와 명사앞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조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언어습득 과정에서 보더라도 Fanselow의 주장은 부가적 분사구문과 같은 복잡한 구문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형용사가 명사앞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경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한다. 유아가 언어를 배울 때, Fanselow의 (16)과 같은 구조를 먼저 익히고 나서 부가적 용법의 형용사를 배운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유아들은 관계절이나 (16)과 같은 구조보다도 더 빨리 두 단어로 된 구문을 배운다는³²⁾ 사실을 주목한다면 Montague 이론에서 주장되는 내포형용사나 명사와 밀접한 관계에서는 형용사들은 조어법이나 다른 문법적 사실에 기인해서 형성된다³³⁾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Fanselow가 해결하지 못한 점으로 früher 등과 같이 부가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와 los같이 술어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다. 그는 단지 독일어의 특성을 GB이론내에서 밝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부가적 형용사구의 특성만을 해결했을 뿐 부가적 내지 술어적 용법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예견하지 못했다. 그의 논의대로 부가적 형용사구는 술어적 용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왜 어떤 형용사들은 단지 한 가지 용법만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단지 그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부가적 형용사구가 Chomsky나 Stowell 등이 이야기한 small clause와 비슷하게 infinit 한 문장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Fanselow의 (16)구조가 옳다면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용사의 이 두 용법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시제를 표현해 주는 자질(일반적으로 INFL)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서충남(1984)에서 주장된 시제의 문제와 동일한 결론이다. 즉 부가적 용법에서는 [Tense] 자질이 없고 술어적 용법에서는 [Tense] 자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의 [Tense] 자질은 형용사의 두 용법에서 의견상 눈에 보이는 통사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형

32) 조명환(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S. 47f.

33) Montague 문법에서도 조어의 의미기술시에는 시간개념이 중요하며 서충남도 이같은 요소의 하나로 시제와 시간개념을 들고 있다.

태소를 우선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나 이 [Tense]는 단순히 통사적인 특성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론상으로는 문장의 시제 Operator로 설정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이는 음성적으로 실현된 시제뿐이 아니고 그에 의해서 표현된 실제 시간과의 복잡한 관계도 포함한다는 말이며 단어자체가 갖는 시간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Fanselow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früher 같은 형용사들은 서충남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제자질을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여 준다. 그러나 이를 위한 더 자세한 연구는 인간이 갖는 시간개념과 시간인식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왜 동사(또는 형용사)에만 시제 (INFL)가 실현되며 명사에는 실현되지 않은가 그리고 동사와 명사, 형용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의 해결과 함께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 Bolinger, D.L. (1967) Adjectives in English: Attribution and Predication, *Lingua* 18.
- Burzio, L. (1981) Intransitive Verbs and Italian Auxiliaries, Doctor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Engel, U. (1977)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erlin.
- Fanselow, G. (1983) *Zu einigen Problemen von Kasus, Rektion und Bindung in dt. Syntax*, Konstanz.
- Heringer, H.J. (1970) *Theorie der deutschen Syntax*, Max Hueber Verlag.
- Jackendoff, R. (1977) \bar{X}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No. 2.
- Jacobs, R. and P. Rosenbaum (1968)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Blaidell Publishing Company.
- Jespersen, O. (1961)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Allen and Unwin.
- Keyser, S.J. and T. Roeper (1984) On the Middle and Erg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15. No. 3.
-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 Montague, R. (1973)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Thomason (1974).
- Motsch, W. (1973) *Syntax des deutschen Adjektivs*, 7. Aufl., Berlin, *Studia Grammatica* 3.

- Perlmutter, D. (1971)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s in Syntax, New York.
- Riemsdijk, H. van (1980) "The Case of German Adjectives", mimeographed, University of Amsterdam.
- Lakoff, G. (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CLS 8. 183-228.
- Schulz, D. und H. Griesbach (1969)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8 Aufl., München: Max Hueber Verlag.
- Stowell, T. (1981) On the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Teubert, W. (1979) Valenz des Substantivs: Attributive Ergänzungen und Angaben,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Vendler, Z. (1968) The Grammar of Goodness, In: Linguistic in Philosophy, Ithaca, N.Y.
- Vennemann, (1974) Zur Theorie der Wortstellungsveränderung: von SXV zu SVX über TVX. In: G. Dinser (hg.), Zur Theorie der Sprachveränderung, Kronberg.
- 문양수 외 9명 공저(1980), 현대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 서충남(1984), 형용사의 용법에 있어 시제의 역할,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1984), 현대독일어 문장부사의 통사의미론 연구 — 확대술어논리를 도입하여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윤만근(1980), 국어의 중주어는 어떻게 생성되나? 언어 제 5권 제 2호.
- 이병찬/신수송(1983), 독어학 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 임흥빈(1970), 생성문법의 한 문제, 노산어문 2집.
- 임흥빈(1981), 존재와 속격표식 {의}, 언어와 언어학 9호, 한국의국어대학.
- 장석진(1975), 비단절 문법: '스쿠스'와 '불투명논리'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3, 한국의국어대학교.
- 조명환(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Zusammenfas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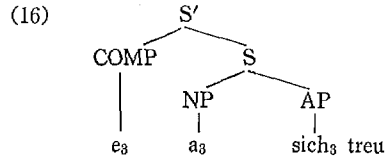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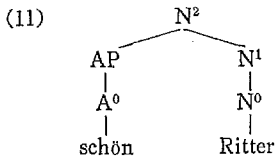
Die Analyse der Struktur des dt. Adjektivs und das Tempus

Seo, Tschung-Nam

Allgemeines Ziel dieser Arbeit ist die Analyse der Struktur des Adjektivs. Es wird dabei auch untersucht, wie der syntaktische Charakter des prädikativen und attributiven Adjektivs angemessen im Rahmen der GB-Theorie beschrieben werden kann, welche Rolle auch noch das Merkmal [\pm Tense] spielt.

Im ersten Abschnitt untersuche ich die Frage, wie das Adjektiv als eine sprachliche Einheit angemessen analysiert und kategorisiert werden kann. Im Bezug auf der syntaktischen Rolle kann sich das dt. Adjektiv von dem Verb nicht so klar unterscheiden, wie das englische Adjektiv, weil das dt. Adjektiv seiner Ergänzung konstanten Kasus zuweisen kann.

Im zweiten Abschnitt behandle ich die allgemeinen, syntaktischen Probleme des prädikativen Adjektivs und betone die Wichtigkeit des Merkmals [\pm Tense]. Deshalb setzte ich vorläufig voraus, daß die Struktur des prädikativen Adjektivs $S \rightarrow NP + INFL + XP$ (wie Fanselow (1983)) sei. Im dritten Abschnitt analysiere ich die Struktur des attributiven Adjektivs. Hier behaupte ich, daß die adjektivische Struktur nicht (11), sondern (16) sei. Z.B. ist die Struktur wie (17) der wichtigste Beweis dafür.



(17) Der als ein Held gestorbene König Arthur.

Im vierten Abschnitt disputiere ich die Behauptung von Fanselow und die Probleme seiner Weise. Er kann den Unterschied zwischen dem prädikativen Adjektiv und dem attributiven Adjektiv, unterschiedliche Gebräuche beider Adjektive nicht erklären. Z.B. kann er den syntaktischen, beschränkten Charakter der Adjektive "früher, los usw." nicht erklären. Dafür kann das Merkmal [\pm Tense], nämlich INFL, eine Rolle spielen. So behaupte und betone ich die Notwendigkeit, es zu formulieren.